불자 세상보기

'갑질 성추행',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옥복연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직 국회의장, 사단장, 지검장, 대학교수…. 어느 새 우리나라가 '성갑질 공화국' 이 되어 버렸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여성에게 이른바 '갑을 관계' 를 악용해서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인 '성갑질'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명예도 있으며, 부인도 있고, 나이도 지긋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남성들이 왜들 이러는 것일까?

의전 서열 2위로 대통령 바로 아래, 입법부의 수장, 그리고 여당의 다선의원 가운데 경륜 있고 신망이 두터워 추천으로 선출된다는 국회의장출신 76세 남성은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농담을 했단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기 도중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니, VVIP 손님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지만 "손녀같이 귀여워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을 뿐" 라는 이 남성의 변명에는 말문이 막힌다. 캐디들의 기피인물로 상습범이었던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위층 성추행범이 되어 법정에 섰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자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고 조언하더니,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성대통령을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라서 섹시하다며 글을 올렸었다. 섹시하다는 말이 여성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으로 착각하고 있던 이 남자는 요즘 거의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골프장 사장은 한밤중에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가 젊은 여직원을 불러내고는 "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며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단다. 이쁜 여자면 다 끌어안아도 되는 것인가?

심지어 전 제주지검장은 수차례에 걸쳐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본 여고생의 신고로 자신이 일했던 검찰에 송치됐다.

군대는 어떤가? 모사단장은 성추행 피해여군을 위로한다며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을 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현직 사단장이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다. 또한 육군 여단장이 20대 여군 하사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여단장의 부하참모 역시 다른 여군을 성추행했다고 조사받고 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군대에서, 부하여군도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건만 이들 눈에는 단지 여자로만 보였나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 한 의원은 가해 여단장이 외박을 못나가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군을 '하사관 아가씨' 라고 불렀다. 졸지에 수십만 군인들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 육사출신으로 군 기무사령관(중장)까지 지내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단다. 더욱이 이 사람이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학은 어떤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천재 수학자로 유명했던 대학교수가 20여 명에 이르는 제자를 성추행해서 조사받고 있다.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을' 인 학생과 조교들을 성추행했다니, 나이어린 피해자들은 존경받는 교수님의 두 얼굴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이처럼 성갑질은 학력, 직업, 나이, 장소 불문하고 발생하며, 일터라는 공간에서 주로 인사권이나 근로조건 등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서 발생하는 비열한 범죄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에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사포세대' , 그리고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세대' 까지 등장하는 판에, 여성이 직장에서 성추행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클까?

그런데 남성중심사회에서 군인, 학생, 아나운서, 캐디 등, 직업을 불문하고 여성이라면 모두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며 성폭력 처벌에 관대한 사회라면 성갑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성갑질은 권력 남용은 물론, 성차별과 성폭력, 남녀 불평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정배 교수 1주기 추모

선생님의 세뱃돈 받는 날이었는데…

목정배 교수의 1주기 추모 법회가 2월 8일 한국불교법사회 중앙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추모시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생전 목정배 교수(사진 왼쪽)와 함께한 중국 성지 순례에서 필자가 목 교수의 그림 작업을 돕고 있다.

추모(追慕)

서울의 온도가 내려가던 날 대지는
하-얀 소복을 입었고
그날 아침 부음은 우리의 귀를 울렸지요. 조마조마 하던 마음 올것이 왔구나고
불국의 조명(弔鳴)음이 울리고 성각의 대성(大星)이 적정 열반의 안식으로
철우 미천 목정배님 부음의 슬픔아침

그 일년 을미년 2월초 그날 맞아 지난해 이맘오늘 부음을 받고서는
먼 여행 서울길 재촉하며 찾아오니 모셔진 영정모습 늘 웃던 그 모습을
가슴으로 저려오던 깊은 감정 두 손모아 박사님 영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조화궁전 사이로 밀려오던 참배님들이 나라 불승 불선 남김없이 찾아왔고
짧은 사흘 시간 속에 남은말길 바쁨이여 첫 새벽 동터기전 길을 나선 운구행렬
정든 집 둘러서 이 자리 오셨다가 젊은 날에 추억교정 후학을 이끈 자리
남산아래 해뜨는집 동국을 둘러보고 다시는 못 건널 한강다리 지나서
그렇게 보낸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면 수많은 선생님과 우리들의 주고받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승과 속을 넘나들며 직언고성 불사하며 불사의 회초리는 누구라도 분별없어
미움도 원망도 한 몸에 짊어지고 퇴색되는 불사운동 선구자 되고파라
〈중략〉
무명법사 이름짓는 불명받는 모습들 순간에 신령스런 붓끝이 움직이면
사람따라 전금후가 보는 듯 하옵고 뜬눈으로 밤새움에 다음날도 그 자리
해맞이 2000년엔 울신지나 바닷가 거친바람 파도소리 우짜그리 추웠던지
장작연탄 불피우고 밤샘하며 지킨불 초저녁 공연때는 신나던 법사마당

옛날처럼 전국순회 안심하던 그 마음이 아주아주 작은 것이 그것이 사단되어
그래도 우리들앞 늘 보여 주셨습니다 20번의 대 고비 넘겼다고 하셨을때
이제는 언 모습을 보여주나 하였지만 쇠퇴한 기력은 지탱할지 못하였고
끝내는 원래자리 반야의 길 가셨습니다

오늘은 1주기 당신님을 보내던 날 가족친지 내빈을 법사가족 모여서
당신님이 남기신 그 큰 뜻을 기리고자 이 법당 높은법당 모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 자리는 선생님의 세뱃돈 받는 날 이었고
장마다 같은 그림 똑같지 않은 것 이제는 그런 돈 받을 곳이 없습니다
누가있어 불명을 지어 주겠습니까
우리들속 새겨있는 선생님과 맺은 정이 자리 가족들과 모두 우리들
남기신 유품으로 생전모습 대신하고 추도의 인사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대한불교법사회 법사5기 이시일

社說

포교방법 재편, 불교 젊어져야 한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종교 지형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 지형 안에서 불교는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 간 불교 인구는 2% 감소했고, 개신교인과 가톨릭인은 변화가 없었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으나 가톨릭은 3040세대의 비율이 전체 신자의 20~30%에 달해 안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불자들의 신앙 만족도 역시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 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기도 · 경전 읽기 빈도, 생활 속 종교 중요도에서도 불교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젊은 불자가 줄고 고령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세대간 전승' 에 있어서 불교가 뒤쳐지기 때문이다. 개종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부모-자식 간 종교 일치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추세에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불교는 향후 종교인구 확장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제 불교는 '가족 신행' 을 중심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재편해야 한다.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 또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회 약자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 공공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다시 전법도생의 길을 나서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60회에 박수를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신적 스승이면서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잊을만 하면 보도되는 종교인들의 추문에 혹자는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시대'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불교라고 다르지 않다.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60회 기념해 연속기획으로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를 주제로 논단을 개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4월까지 3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연속 논단은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2월 26일 열리는 논단에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수행, 정말 잘 하고 있는가' 를, 3월 19일 논단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4월 16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은 2009년 2월 27일에 첫모임을 시작한 이래 매달 1회씩 10년 동안 10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왔으며 올해 1월15일 모임까지 59회를 계속해왔다. 모임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발전적 대안을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참가자가 토론해왔다. 주제 역시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안을 비롯해 인접학문과의 통섭, 학술적 의제, 불교 내부 문제 등을 그 폭이 넓었다.

불교계의 토론 문화에 대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평론의 열린논단은 불교 토론문화 창달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확실한 주제 선정과 적절한 패널 설정, 열기 높은 참가자들의 의견개진은 불교 토론문화의 새 바람이었다. 불교평론의 열린논단이 앞으로도 계속 불교 토론문화 선도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